

# 올해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자 역대 최대 경신

### 6일 기준으로 1002만1853명 입국



올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수가 1002만18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9일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1002만1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86만명) 증가

한 것이다. 종전 최고기록은 지난 2016년 기록한 1001만951명이다. 외국인 입국자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297만9732명(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일본 156만16563명(31%↑), 미국 84만 1419명(9%↑), 대만 70만4576명(14%↑), 홍콩 52만3365명(1.3%↑), 태국

43만8734명(7.7%↑), 베트남 40만 8508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입국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56만여 명이 입국했다. 이는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여파 이전인 2016년 같은기간까지 입국자 수(54만여명)와 비교하면 2만명 이상 많은 것이라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드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중국인 수가 올해 들어 증가했고, 일본과 베트남 관광객 등의 증가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국민출국자는 1979만 79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44만5561명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일본(20%)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베트남(12%), 중국(11%), 필리핀(8%) 순으로 조사됐다.

## 박원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평화통일 완성판 될 가능성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평창올림픽이 전쟁 위기상황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시금석을 다졌다면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은 완성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에서 열린 인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대화에 참가해 "2032년에는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제가 동경을 갈 때 마다 올림픽을 유치하는 엠블럼을 보면서 서울도 다시 유치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그래서 청와대나 국정원, 통일부에 다음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2032년 올

림픽을 평양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3차 정상회담 의제에 (올림픽 유치)가 들어간 것은 제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라거나 시설을 만드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서울은 이미 스포츠 시설이 다 갖춰있다. 어떻게 올림픽 정신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또 한반도에서 촉발된 평화를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갈등 관계를 가져왔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전체의 평화로 어떻게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 "공동체 활성화 우수 아파트는?"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서울시는 10~11일 서울시장 다목적홀·시민청에서 '2018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을 연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한마당은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연말 결산 행사다.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가 소개·발표된다.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 중인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공개된다. 251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가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단지로 선정됐다. 이들 단지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거둔다. 또 의무관리단지 중 900세대 이상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선정된 총 51개 우수관리단지 중 5개 단지를 초청해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하는 '아파트 관리품질등급제 인증식'과 '모범관리단지 시상식'이 진행된다. 시민청에서는 26개 자치구별 공동체 활성화 우수활동 프로그램 전시·체험 부스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 역무원이 알려주는 알아두면 유용한 지하철 이용팁은?

### 유실물 빨리 찾는 법 · 교통약자 지하철 이용팁 소개

누구나 한번쯤 지하철을 이용하다 물건을 잃어버려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몸이 불편해 지하철 탑승 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역무원이 알려주는 지하철 이용팁을 주목해보자. 8일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포티지하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앱에 접속해 '교통약자 버튼'을 누르면 지하철 역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이용객은 역에 있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등이 어떤 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물품의 경우 모든 역에 구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 현상에 대한 정보도 앱을 통해 얻을 수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역을 즐겨찾기 해놓으면 승강기 점검 정비 현황 알림도 받을 수 있어 이동경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앱 안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팔택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을 이용하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는 팁도 있다. 우선 본인이 내린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지하철을 탈 때 승강장 바닥에 열차의 위치가 쓰여진 칸 번호가 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탑승했던 칸 번호를

기억해 역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대체적으로 유실물을 빨리 찾는 경우는 역 직원이 이용객이 말한 열차 칸에 탑승해 찾을 때가 많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하면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다. 만약 열차 탑승 칸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교통카드를 몇 시쯤 열차에서 하차했는지를 기억하면 된다. 몇 시쯤 하차했는지 확인 후 가까운 역무실에 방문해 해당 시간대의 열차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열차가 현재 기지로 입고됐는지, 현재 운행 중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유실물을 찾을 수 있다. 모든 방법으로 유실물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www.lcs.112.go.kr)에 접속해 본인 물건이 올라오는지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초겨울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

초겨울 한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효자기압장에서 직원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보여주고 있다.

## AI 막아라...용인시, 산란계 농장 집중 점검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 출입과 식용란 수거 차량 등의 관리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과거 고병원성 AI가 겨울철 철새도래지 인근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산란계나 계, 메추리를 5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11개 농가를 집중점검 대상으로 정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들 농장의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운영과 차량 운전자와 농장직원을 포함한 전 출입자에 대한 대인소독기 상시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구는 또 산란계농장에서 계란을 수거하는 6개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육업체의 운반차량 17대에 GPS 전원 상시 작동여부와 차량소독장비 보유상태 등도 점검하고 있다.



지역공감·미래성장·전문리뷰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